

## KBO리그 전면드래프트 부활 논쟁…한화 박종훈 단장-LG 차명석 단장 ‘빅뱅’

## ‘찬성파’ 박종훈 단장



KBO 신인지명제도에 관해선 1차지명제도와 전면드래프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져왔다. ‘균형 경쟁’을 강조하는 한화 이글스 박종훈 단장(왼쪽)은 전면드래프트로의 전환을 원하고,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은 구단의 이기심에 의한 빈번한 제도 변경을 경계한다.



## ‘반대파’ 차명석 단장

외면 당한 아마야구  
“우리 얘기도 들어줘”

“우리 목소리도 조금은 들어 달라.”

신인지명제도는 프로 구단의 수년 뒤 농사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현행 1차지명 방식에서 프로 팀들이 연고지 학교에 투자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드래프트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마추어 야구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제도를 바꾸고 구단들의 예산 감축이 수반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아마야구계는 최근 한숨을 푹 내쉬기 바쁘다.

전면드래프트 도입 당시 고교팀 코치였던 지방 A고교 감독은 “제도 변경 후 연고지 프로팀의 지원이 대폭 줄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시 1차지명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그 지원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1~2억의 증감이 아니다. 제도 변경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다는 점이 아마야구 현장을 병들게 만든다. 2010시즌부터 전면드래프트가 시작됐고, 2014시즌부터 다시 현행 1차지명으로 돌아왔다. 당시 야구부 관계자들은 급진적 제도 변경과 구단의 지갑 닫기로 당장의 예산 부족에 허덕였다. 지방 B고교 관계자가 “당장 올해 예산안은 이미 짠 상황이다. 내년부터 드래프트 제도를 바꾸고 구단의 지원이 더 줄어든다면 돈을 융통할 수단이 없다”고 한숨을 쉬는 이유다. 2020시즌 1차지명 유력 후보로 꼽히는 서울권 C 선수 역시 “물론 고교 선수라면 지명 받는 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명 방식에 대한 변경 논란이 거듭 이어지면서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토로했다.

지방 D구단 관계자는 전면드래프트 시절 아마야구 지도자로 현장을 누볐다. 현재 프로팀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전면드래프트와 구단의 지원금 축소로 겪은 고통을 기억하는 인물이다. 그는 “구단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니 지명방식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 야구계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돼있다. ‘그들의 요청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중 한 명의 의견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균형경쟁 합시다”

## “실패한 정책, 또?”

“한해 좋고 다음해 나쁘고 반복 개선  
1순위 지명자 부각…흥행에도 도움”

한화 이글스는 전면드래프트의 부활을 원한다. 서울로만 향하는 유망주들의 쏠림현상에 따라 지방팀들이 겪는 어려움때문만은 아니었다. 한화 박종훈 단장은 신중하고 차분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단장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균형경쟁을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전체 1순위 지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해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신인지명제도는 KBO리그 전체의 흥행과 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처럼 1차지명이 있는 상태에

선 전체 1순위 지명자의 의미가 희석되지 않는가. (전면드래프트 부활로) 1순위 지명자가 부각되면 KBO리그 전체의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3개 팀에 우수자원이 편중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박 단장은 “우리 구단으로만 좁혀보면 올해는 자원(신인)이 편중됐다. 그러나 한해 좋고 다음해는 나쁘고 하는 식으로는 균형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을 희망했다. 그는 “현재는 10개 구단이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다. 논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1차지명으로 제도 바꾼 지 얼마 안돼  
이해 따라 정책 바뀌어야…명분 없다”

LG 트윈스는 1차지명제도의 유지를 원한다. 단순히 유망주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서울권의 이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빈번하게 신인지명제도를 바꾸는 리그 구성원들의 이기심을 경계한다. 실제 KBO 리그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거듭된 제도 변경을 통해 1차지명과 전면드래프트 사이를 오갔고, 이에 관한 논쟁 역시 끊이지 않았다.

LG 차명석 단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왜 한 번 실패한 정책을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전면드래프트로 돌

아서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득실에 따라 정책을 바뀌선 안 된다. 1차지명으로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해보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를 포함한 서울권 3개(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 팀은 현 1차지명 제도를 활용 지방 팀보다 더 수월하게 특급 유망주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관한 견제의 시각에 대해서도 LG는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 3개 팀이 고등학교를 3분의 1로 나눠가지는 방안을 두고 차 단장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두산, 키움과 협의가 필요하다. 두 팀과 상의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MLB ‘2박3일 드래프트’  
NPB ‘제비뽑기’로 결정

야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신인지명은 어떤 모습일까.

메이저리그 신인지명제도는 1965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고교를 졸업한 선수들을 구단들이 곧바로 자유계약선수수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뉴욕 양키스 같은 빅마켓 구단들이 웃돈을 주고 선수를 ‘썩썩’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무국이 방지책으로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했다. 하루 만에 끝나는 KBO리그의 신인지명제도와 달리 지명 규모가 커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미국령) 고등학교 및 대학교 출신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4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구단 연고 출신의 신인을 뽑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일본프로야구(NPB)는 KBO리그와 달리 신청한 선수에 한해서만 드래프트가 진행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고 출신 신인을 뽑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NPB에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 1라운드 추첨권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각 팀은 1라운드에 가장 지명하고 싶은 선수를 써서 사무국에 제출하는데, 해당 선수를 뽑고 싶은 팀이 둘 이상이면 추첨을 진행한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호남 인재 싹쓸이…‘해태왕조’의 원동력

## KBO 신인지명제도의 역사

연고지 1차지명 무제한 허용 ‘수혜’  
인원 제한…1990년대 팽창 논란도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한때 프로야구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유행을 탄 낚두리다. 1996년 선동열, 1998년 이종범이 차례차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로 떠나자 당시 해태 타이거즈 김용

룡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그러나 해태는 1998년에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9번째 정상. 선동열, 이종범이 없어도 호남야구의 스타들로 구성된 해태는 막강했다. 그래서인지 삼성 라이온즈는 해태와 또 다른 호남팀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들을 유독 탐냈다.

‘해태왕조’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딱히 때부터 남달랐던 인재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또 초창기 프로야구의 신인지명제도가 해태에 선사한 태생적 강점이기도 했다. 해태는 우수자원이 풍부

했던 호남에 근거를 둔 덕을 톡톡히 봤다.

한국프로야구의 지역연고제는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신인지명제도에도 적용돼 초창기에는 해당지역 고교 출신에 대한 1차지명을 무제한 허용했다. 첫 신인지명이 진행된 1983년부터 1985년까지다. 이 때문에 드래프트 방식의 2차지명은 유명무실했다. 팀당 1차지명 인원은 1986년 10명, 1987년 3명, 1990년 2명, 1991년 1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고지역 고졸예정선수를 3명까지 뽑을 수 있는 우선지명이 도입됐다. 우선지명은 1999년(팀당 1명)을 끝으로 폐지됐다. 2000년부터 지금과 같은 방식(1차지명 1명·2차지명 드래

프트)으로 자리 잡았다. 우수자원의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잠시나마 1차지명을 폐지하고 전면드래프트가 실시됐다.

1차지명 체제에선 공동연고의 서울팀들끼리는 지명순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키움 히어로즈가 신사협정을 맺고 잡음을 원천차단하고 있지만 1990년대까지는 달랐다. 직전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정하면 팅킹(tanking·신인지명제도의 상위 지명권을 노려 고의로 지는 행위)이 불거졌고, 이해관계가 끝까지 맞서면 가위바위보 또는 주사위 굴리기까지 동원됐다. MBC 청룡-O B 베어스 시절부터다.

정재우 전문기자